

광주출신 중대장 “공군, 방림동 등 4곳 공습 대상지 설정”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20사단 박모 대위 특조위 진술 “작전회의서 ‘Air Strike’ 들어” 공군참모총장 전투기 2대 대기 지시 美, 광주 거주 자국민 대피 정황도

계 된 점, 박씨가 육군으로서 공군에 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다만 ‘Air Strike’가 공군 항공기에 의한 폭격인지 육군 헬기의 지상공격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들은 ‘Air Strike’의 의미가 헬기 보다 항공기 폭격에 더 가깝다고 분석한다.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2011년 만든 ‘국방과학기술 용어 사전’에도 ‘공중 타격’(Air Strike)은 ‘공격 임무를 부여 받은 전투기, 폭격기 또는 공격기에 의한 특정 지상 목표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폭격을 준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또 있다.

특조위가 발굴한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자료’ 1091쪽에는 ‘16 : 00 현재 전국 진동계 들’이 발령된 사실과 함께 같은날 오후 4시35분 당시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이 내린 ‘전 기지 전동지시, C/S 지시사항 광주 C-123 FL 대기, 2F-5F/B 비상대기’ 지시사항이 기재돼 있다. C/S는 공군참모총장, C-123 FL은 수송기, 2F-5F/B의 앞 숫자는 비행기 대수, F-5F/B는 전투기 기종명이다. 이 지시사항은 공군 참모총장이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전투기 2대 등을



한파에도 분주한 설 준비 광주지역 적설량이 6cm를 기록한 11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 설 제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② 광주 공습 대기 의혹

고(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아내 마사 헌틀리 여사가 주장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 폭격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광주 출신 20사단 소속의 한 중대장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작전회의에 참석해 ‘Air Strike’(공중 타격)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증언했다. ‘Air Strike’는 공군에 의한 지상 표적 파괴를 의미한다.

20사단 61연대 1대대 3중대장으로 광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박모씨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전교사에 주둔하던 당시 작전회의를 하면서 발표자가 ‘Air Strike’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며 “‘Air Strike’ 지역은 광주 외곽 4개 지역으로, 집이 있던 방림동 파출소 앞 야산이 포함돼 있어 ‘민간인 거주지역이어서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특조위에 진술했다.

특조위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육군 작전 관련 정황을 이야기 하던 중 해당 진술이 자연스럽게 나오

비상대기 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특조위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광주기지를 지목해 전투기 대기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육군 ‘일일역사보고’에는 1980년 5월23일 오전 8시50분 계엄사령관실에서 열린 계엄사작전회의에서 황영시 계엄사 참모차장이 “그 작전계획으로 작전할 때 시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나겠느냐. 내 생각

에는 10만명이 날 것 같다”고 말한 상황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 말을 듣고 작전 재검토를 지시한다.

또한 특조위가 주한미군대사관과 미 국무부에서 오간 긴급통신문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미국 정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을 급하게 광주 미 공군기지로 대피시키려고 했다.

당시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22일 유병현 합

참의장으로부터 광주 재진입 작전계획을 들은 후 ‘대단히 위험한 작전, 엄청난 참사’ 등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 폭격설’의 최초 출처가 주한 미군대사관, 미 공군기지 관계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미국의 행보와 광주 폭격계획은 관련성이 깊다”며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

‘헬기 사격 없었다’는 전두환 檢 소환되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지 주목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상태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동안 검찰 수사 기록, 헬기 목격 증언, 헬기 출격 기록 등 자료 확인, 헬기 조종사 조사 등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와 최근 발표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집필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집필한 것인지 고의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신분인 전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검찰의 판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전 등을 감안하면 소환 방법, 시기를 놓고 검찰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불응해 결국 체포됐다. /김용희기자 kimyh@

송영무 “계엄군 헬기 사격 광주시민께 죄송”

국방부, 첫 공식 사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사과했다.

송 장관은 지난 9일 발표된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5·18 역사 애곡을 주도했던 ‘511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9일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10일 광주를 찾아 5·18단체에게 사과했다. 광주 5월 단체들은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는 환영했지만, 서 차관의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달뜨기 04:41
해질 18:12 달짐 15:02

출근길 함박눈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많은 눈 내리는 곳 있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고 눈	-5/2	보성	구름많음	-8/0
목포	구름많음	-4/1	순천	구름많음	-5/2
여수	구름많음	-4/2	영광	구름많음	-7/1
나주	구름많음	-7/1	진도	구름많음	0/3
완도	구름많음	-3/2	진주	눈	-7/1
구례	구름많고 눈	-7/1	군산	눈	-6/1
강진	구름많음	-5/2	남원	눈	-8/0
해남	구름많음	-5/1	홍산도	구름많음	-2/3
장성	구름많고 눈	-7/1			



◇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앞바다	서~북서	2.0~3.0	서~북서	2.0~3.0	
안바다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남해	서~북서	1.0~2.5	서~북서	1.0~2.5	
안바다(동)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안바다(서)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 생활지수

☁	매우높음
☁	높음
☁	매우낮음
☁	낮음
☁	보통
☁	미세먼지

◇ 주간 날씨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	☁	☁	☁	☁	☁	☁
-3/7	0/9	-1/9	0/10	0/8	-1/7	-2/6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샬롬산업(주), (주)별고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국용멸치 200g 4,000 원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전미역 250g 3,800 원	해산물세트 17,000 원

(주)별고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별고읍 왕암길 185-95 Tel. 061)745-9907

샬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꼬막볶음고추장 5,850 원	왕꼬막조림간장 2,250 원	꼬막조림소금 2,700 원	꼬막조림간장 2,700 원	히팅육 소고기맛 4,500 원	제육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물기업인 (주)아라움, 샬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샬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한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태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송양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물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복분말(개량) 15,000 원	조개분말(개량) 7,000 원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 원	

(주)아침가리 대표 김영수

구매문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별고꼬막 061)745-9907
샬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